

다리 이야기 ②

說話로 기록된 다리... 아담다리와 어별부교

이덕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dsrhee@cerik.re.kr

천제(天幸)의 손녀 직녀(織女)는 길쌈 잘하고 부지런한 처녀였다. 천제께서 매우 사랑하시어 어여삐 여기다가 은하수 건너 살던 목동 견우(牽牛)와 혼인시켰다. 부지런했던 이들 부부는 그러나, 신혼에 취해 점점 게을러졌다. 크게 노한 천제는 부부를 은하수 이쪽저쪽으로 떼어 별거케 하고, 한 해에 딱 한 번 칠월칠석 하룻밤만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칠석날이 되어도 두 사람은 강 건너 내님을 애타게 그리워할 뿐 만날 수가 없었다. 이 젊은 부부에게는 넓디넓은 하늘 강 은하수(銀河水)를 건널 배 한 척이 없었던 것이다. 보다보다 안타까워, 까막까치들이 하늘로 하늘로 까맣게 몰려 올라가 그 밤, 하늘 강에 다리를 놓았다. 까막까치들이 제 몸들을 잇고 이어 만든 오작교(烏鵲橋)에서 견우

와 직녀는 눈물의 상봉을 하였다. 그 벅찬 기쁨의 눈물이 비로 내렸으니 곧 칠석우(七夕雨)였다.

견우직녀 설화(說話)이다. 어릴 적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 은하수를 올려다보며 진짠가 궁금해 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중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5세기 문학 작품에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설화 속 천상 까막까치다리가 남원 광한루원(廣寒樓苑)에 현재화되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속 다리들이 어디 오작교뿐이겠는가. 끊어진 길을 이어주는 다리이기에, 이야기 속 다리는 더욱 극적(劇的)이다. 최근 들어 인도 신화에 서술된 다리 이야기가 세계적인 화제에 오른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구려 건국 설화의 물고기·자라가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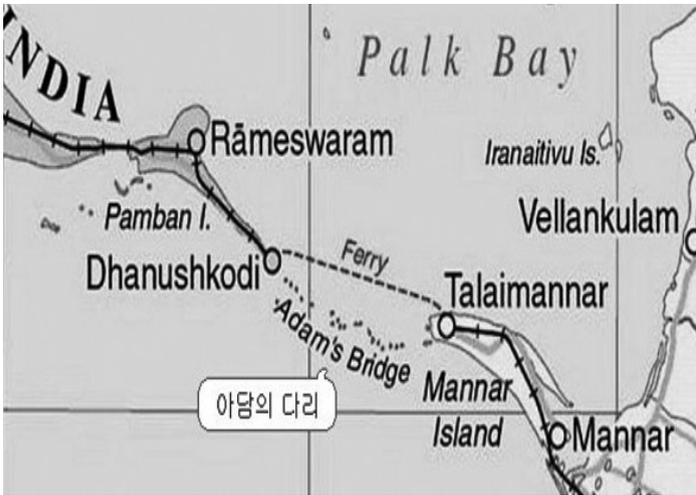
왔다는 다리도 재해석되고 있다.

NASA에서 작명한 아담다리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 폴크해협(Palk Strait) 70여 리 바닷길을 잇는 해저 '연결선'이 발견되었다. 1994년 4월 미국 우주 왕복선 인데버(Endeavour)호가 우주에서 촬영한 정밀 사진에 그 흔적이 선명하다. 바다를 가르는 듯 신비로운, 그러면서 다리처럼 섬과 섬을 정확하게 이어주는 이 구조물이 인공에 의한 것인가 자연 현상으로 생긴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다른 곳도 아닌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아담다리(Adam's Bridge)'라는 이름까지 지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NASA에서는 이 해저 연결선을 오래 전에 형성된 거대한 사주(砂洲)형

다리라고 설명했다. 아담은 스리랑카에 있는 산 이름이라고 한다.

총연장 18마일(30km) 남짓인 아담다리는 인도 동남부 타밀나두(Tamil Nadu) 해안 팜반(Pamban) 섬과 스리랑카 북서부 해안 만나르(Mannar) 섬 사이의 여울목으로 사슬 혹은 염주 모양을 하고 있다. 아담다리 부근 바다는 얇아서 그 깊이가 1~10m에 불과하다. 일부 모래톱은 물에 잠기지도 않는다. 완만하게 휘, 그 석회암 여울목 사진을 들여다보며 상상력을 동원해볼진대 아득한 옛날 옛적 이 '다리'가 두 섬을 이어주던 연도교(連島橋)였을 가능성에 흥미가 배가된다. 일각에서는 실제 그 독특한 만곡(彎曲, curvature) 등을 근거로 사람이 구축한 옛 다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전해오는 이야기들로는,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의 아담다리.



위성에서 찍은 사진에도 해저 연결선이 뚜렷하게 보인다.

폭풍우로 침수된 15세기 이전까지는 이 바닷길이 해수면보다 확실하게 높았던바 사람이 걸어서 통행했었다고 한다.

고대 힌두교에서 전해오는 신화(神話) 즉, 세계 최장의 서사시(敍事詩) <Ramayana(라마야나)>에 서술된 다리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적잖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기원전 3세기경 인도 시인 발미키(Valmiki)가 편저한 것으로 알려진 <라마야나>에 의하면, 라메슈와람(Rameshwaram) 왕국(지금의 인도) 왕자 라마(Rama)는 비슈누(Visnu)신의 환생이었다. 이 서사시에서 라마 왕자는 원숭이 나라 군대로 스릴란칸(Srilankan) 왕국(지금의 스리랑카)의 마왕(魔王) 라바나(Ravana)를 제거하고자 했다. 라마의 아내 시타(Sita)가 라바나에게 납치되었던바 겁탈당한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마야나>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라마와 그의 동맹군이 원숭이 부대의 진격로를 개척하고자 바닷길에 모래와 바위 등으로 지탱하는 거대한 다리 'Rama Setu'를 놓았다고 기록했다. 일부 종교학자와 힌두교 신자들은 이 서사시에 기록된 신화 속 다리의 위치와 길이 등이 아담다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담다리의 또 다른 이름은 '라마다리(Rama Bridge)'이다. 그리고 신화 속 라마와 라바나의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175만 년 전인 '트레타 유가(tredha yuga)' 시대에 일어났다고 한다. 스리랑카에서 발굴된 원시 인류의 흔적이 최고 175만 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도 있다. 그렇다면 아담다리는 불가사의(不可思議)... 이미 새로운 미스터리의 반열에 올라 있다.

종교적 색채를 지우고 지질과학으로 판단할진대 아담다리는 산호초와 암초,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다리(natural bridge)라고 한다. 아주 오래 전에 발생했던 용기 현상의 흔적이라고도 한다. 인도에서 실시한 방사선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여울목 일대는 지금으로부터 1만 8,000년 전에서부터 7,000년 전 사이 어느 시점에 현재 모양처럼 형성되었다. 열 루미네선스(thermoluminescence) 연대 측정에서는 아담다리 일부 인도 쪽 모래톱은 불과 500~600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외 부근 암초·산호 등은 3,500년 전, 4,020년 플러스마이너스 160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한다. 19세기에는 이 여울목에 항로를 개설하고자 준설 공사를 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인도 정부에서 운하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신화 속 라마다리를 부정하다가 역풍에 혼쭐이 나기도 했었다.

어별부고- 우리 역사서의 첫 다리 기록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다리'라는 말은 고구려 건국 설화부터 등장한다. 즉,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始祖東明王" 조에 다리 '梁'과 다리 '橋'가 최초로 기록되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기원전 37년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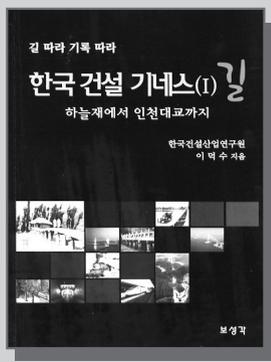
...<전략> 이에 주몽은 오이·마리·협부 등 세 사람을 벗 삼아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었다(朱蒙及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行至淹水水欲渡無梁). 추격병이 곧 다다를까 두려워하며 강물에 이르기를(恐爲追兵所迫告水曰) "나는

천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하는 중에 추격자가 쫓아오니 어찌하랴”고 하였다(我是天帝子河伯外孫今日逃走追者垂及如何). 그러자 물속에서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었다(於是魚鼈浮出成橋). 주몽이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흩어졌다(朱蒙得渡魚鼈乃解). 쫓아오던 기병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追騎不得渡).

「삼국사기」에서는 엄사수를 “일명 개사수로 지금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一名蓋斯水在今鴨綠北東)”는 주(註)를 붙였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오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사서들에서 ‘엄한수(淹漢水)’, ‘시엄수(施淹水)’, ‘엄체수(淹滯水)’라고 했으며 광개토태왕비문에서는 ‘엄리대수(奄利大水)’라고 한 엄사수는 지금의 중국 동베이(東北)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을 관류하는 송화강

(松花江)을 일컫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050여 년 전의 일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이 설화적 기사로 말미암아 기원전부터 우리 민족 역시 다리라는 구조물이 통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물고기와 자라가 물속에서 떠올라 놓았다는 다리 이야기는 황당한 설화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이야기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몽이 송화강변에 이르러 도움을 청하자, 고기잡이하던 부족들이 뗏목이나 나무 따위로 화급하게 뜬다리, 부교(浮橋)를 가설했다가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자마자 해체했음을 비유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서에 처음 기록된 다리는 「삼국사기」의 ‘어별부교(魚鼈浮橋)’가 되는 것이다. CERIK

도 · 서 · 안 · 내 | 한국 건설 기네스(I) 길 | 이덕수 지음, 보성각 펴냄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현대의 우리나라 도로와 철도를 새롭게 조명한 책이 나와 건설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덕수 연구위원은 기록상 보이는 최초의 도로인 계림령(하늘재)을 비롯해 수표교, 신작로를 거쳐 인천대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통시설 SOC 분야에서 '최초, 최고, 최장, 최대' 등의 가치를 지닌 구조물들을 시대순으로 묶어 「한국 건설 기네스(I) 길」을 발간하였다.